

'책의 해' 동네서점들 심야책방 열어 독자와 소통

2018 문화계 결산 <3> 문학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 개최
 아시아문학 페스티벌 문인들 관심
 미투 열풍으로 문학계도 몸살
 평론가 황현산·소설가 최인훈 타계
 광주문학관 부지 시화 문화마을 1순위

올해 문학계는 문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으로 다수의 창작집이 발간돼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해였다. 또한 제3회 운동주서시문학상 개최, 제2회아시아문학 페스티벌 등 굵직한 행사가 치러져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반면 '미투'로 촉발된 성희롱 논란으로 문단이 얼룩졌다. 또한 목포 출신 평론가 황현산과 평론가인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 소설가 최인훈의 별세 등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먼저, 올해 지역 문단에서는 팔순을 맞은 한승원, 문순태 원로 작가가 장편소설과 시집을 발간했다. 문순태 작가는 시집 '생오지 생각'을, 한승원 작가는 장편 '도깨비와 춤을'을 펴냈다. 서로 다른 장르이지만 작품 속에서 두 문인은 늙어감의 의미와 작가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다.

이밖에 중견, 신인 작가들의 작품집 출간도 잇따랐다. 고재중 시인, 김선태 시인, 이대흠 시인, 김안 시인, 김재석 시인, 김미승 시인, 성안영 시인, 김향희 시인, 이화경 작가, 차노휘 작가, 이연초 작가, 박이수 작가, 손예빈 작가, 신형철 평론가 등 작품집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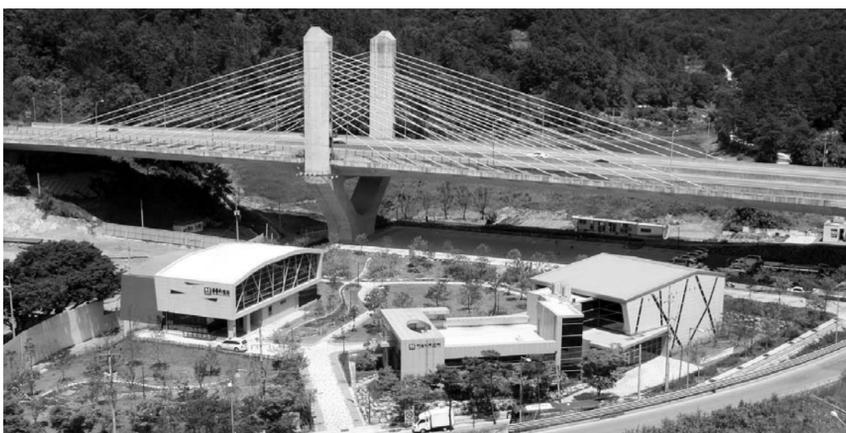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제정,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은 운동주서시문학상에는 전동균(부산 동의대 교수)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자정의 태양"이라 불리었던 외 6편. 전동균(56) 시인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와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1986년 '이사' 외 4편으로 소설문학사 제정 신인작품상에 당선됐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동주서시해외작가상은 미국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뉴욕예술인협회 창립 회장을 역임한 신지혜 시인에게 돌아갔다. 또한 운동주서시해외작가 특별상에는 캐나다 중앙일보 객원논설위원을 지냈으며 캐나다 문화예술공로상, 한국문학세계화추진운동본부 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유식(77) 시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개최돼 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시아에서 평화를 노래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이 11월6일부터 9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문학낭장, 아시아문학포럼, 아시아 문학낭송제, 팟캐스트, 몽골 시인이자 제1회 아시아문학상 수상자인 담두스룬 우리양기아와 이영산 작가의 대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아시아 문인들은 "2018광주작가선언문"에서 "광주의 기억과 상처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며 "광주가 아시아 평화를 위한 연대의 출발점이 되고 평화를 위한 문학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아시아문화전당이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장면(위)과 광주문학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북구 시화마을. <광주일보 자료사진>

특히 아시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트남 소설가 바오 님은 선정 직후 언론과의 대화에서 의미있는 발언을 해주목을 받았다.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학살을 자행했던 것은 그들이 베트남전(월남전쟁)에 참전해 양민 학살의 실전 경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부사관들 중 일부가 광주 5·18 때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며 "이 부분은 베트남전과 광주학살이 긴밀히 연관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80년 5월 당시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이 민주화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잔혹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2018 책의 해"를 맞아 동네서점들이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독자와 소통에 나선 점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동네 서점들이 심야 책방으로 다시 태어났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심야 책방은 각기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맞이했다.

마지막 주 금요일 책방에서는 심야독서, 토론회, 창작,

와인시음, 산책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각 서점마다 상황에 따라 행사가 유동적이었지만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이와 달리 올해 문학계는 '미투'로 인해 적잖은 몸살을 앓았다. 최영미 시인이 시 '괴물'이 '황해문화'에 실리면서 촉발된 미투 논란은 문단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강타했다. 현재 고은 시인은 최 시인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역 출신으로 유려한 문체와 깊은 사유의 문장으로 고정 독자층이 있었던 황현산 평론가의 타계는 지역 독자뿐 아니라 문단 전체에 상실감을 주었다. 또한 백수십 권에 이르는 저서와 번역서를 내놓으며 한국 문단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김윤식 평론가와 '광장'의 작가 최인훈의 타계 소식도 적잖은 안타까움을 주었다.

한편 지역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국립한국문학관은 서울 은평구로 부지가 확정됐다. 반면 광주문학관(가칭)은 용역 결과 최종 후보지 네 곳 가운데 북구 각화동 시화 문화마을이 1순위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첫 삽을 뜰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학상 시인 조의연·소설가 이민주 선정

광주문인협회가 주관하는 제31회 광주문학상 수상자로 조의연 시인과 이민주 소설가가 선정됐다.

조의연 시인은 지방 일간지 신춘문예 출신이며 시집 '강의 어귀에서 휘돌아 나간다' 등 모두 3권의 시집을 펴냈다. 이민주 소설가 역시 지방 일간지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후 소설집 '종이꽃'을 발간했으며 현재 '광주문학' 편집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광주문학'에 발표된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올해의 올해의 작품상에는 아동문학가 김미라 씨가 선정됐다.



조의연 시인 이민주 소설가

한편 광주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다. 010-9105-282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백호 임제 문학상 본상 신덕룡 시인

나주문학상 손예빈 작가

'2018년 백호 임제 문학상' 시(詩) 작품 본상에 신덕룡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집 '다섯 손가락이 남습니다'이며 상금은 2000만원.

나주시가 주관하는 백호 임제 문학상은 임제 선생의 시대정신과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2년내 작품집을 발표한 전국 문학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본상과 아울러 함께 진행된 나주문학상(상금 500만원)에는 장편소설 '호랑가시 나무 언덕'을 출품한 봉황출신 손예빈 작가가 선정됐다.

본상을 수상한 신 시인의 시집 '다섯 손가락이 남습니다'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서정의 깊이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신덕룡 시인 손예빈 소설가

평가를 받았다. 결핍과 고독의 존재를 향한 심미적 형상화가 두드러진다.

나주문학상을 수상한 손 작가의 '호랑가시 나무 언덕'은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전후 광주를 배경으로 독립투사들과 일본 장교 사이의 역사적 사건을 다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송년음악회·연극 '력기' 공연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음악회와 연극 상연을 준비했다.

먼저 28일 오후 7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2018 박물관 송년 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호남의 대표 연주단체인 광주시립교향악단(사진)의 '찾아가는 연주회'와 연계해 진행된다. 대규모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이번 공연에서는 김영연 광주시향 부지휘자와 바이올리니스트 박신영이 협연하며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그리그의 곡으로 채워진다.

30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는

인생 역전 코미디 연극 '력기'를 상연한다. '력기'는 2016년 9월 첫 선을 보인 '코미디의 왕'이 업그레이드된 작품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세 가지 설정으로 구성했다. 또한 마음과 마술을 이용한 퍼포먼스, 차려까지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 중간마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도 제공한다. 26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도 진행된다.

문의 062-570-7016/70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p>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3>개업·성업 안내</h3> <p>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p>	<h3>초대 화랑</h3>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h3>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h3> <p>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p> <p>☎062)236-1121</p>	<h3>루팡 닭강정</h3> <p>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p> <p>대표 한경수 ☎010-3844-7145</p>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시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h3>금강버티컬</h3>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h3>그집고기</h3> <p>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p> <p>대표 양병학 ☎010-6648-8842</p>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h3>하얀나라 운동화세탁</h3> <p>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p> <p>☎062)269-4450, 010-4607-5773</p>	<h3>고흥나루터</h3>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h3>기담철학원</h3> <p>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p> <p>☎062)432-1324</p>
<h3>교원빨간펜남광주센터</h3> <p>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 취득가능</p> <p>☎010-3613-3145</p>	<h3>청학철학원</h3>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h3>으뜸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h3>신신예술의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h3>서울표구점</h3> <p>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p> <p>☎010-3633-2790</p>	<h3>메타루이펜션</h3> <p>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프로방스 옆)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p> <p>☎061)383-2698, 010-3603-2698</p>
<h3>양지공인중개사</h3>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정민각 ☎062)263-2223</p>	<h3>박당화랑</h3>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h3>토산철학원</h3>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h3>국수나무용봉점</h3> <p>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h3>해피니스요양병원</h3> <p>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p> <p>☎062)251-8400</p>